

KREI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플러스



이명기 | 선임연구위원
mklee@krei.re.kr

농가경제 실태와 농업 성장을 위한 시사점

KEY MESSAGE

- ✓ 한국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농가 중심으로 경영 역량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 및 규모화를 위한 정책 강화 필요

SUMMARY

- 한국 농업은 총량적, 평균적 지표만 보면 성장 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영농규모와 소득구조에 따른 주부업 유형별로 보면, 전문농가의 생산비중, 소득수준 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영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전문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필요

01 한국 농업의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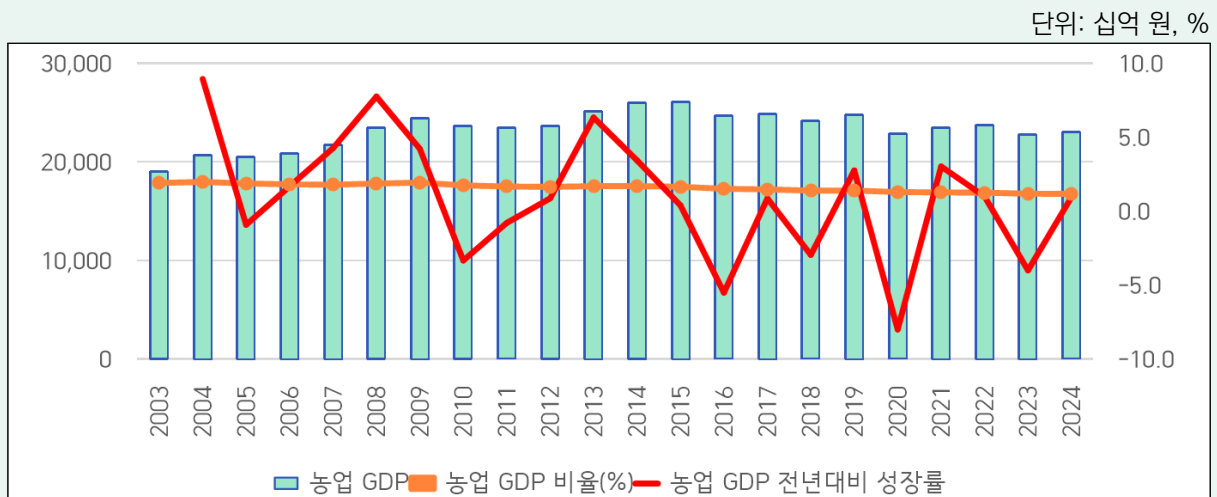


농업 경제 규모 축소

Ⅰ 2015년 이후 농업 GDP 감소 추세, 농업 GDP 성장률은 +와 -를 반복

-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강화와 정책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그림 1〉 농업 GDP(2020년 기준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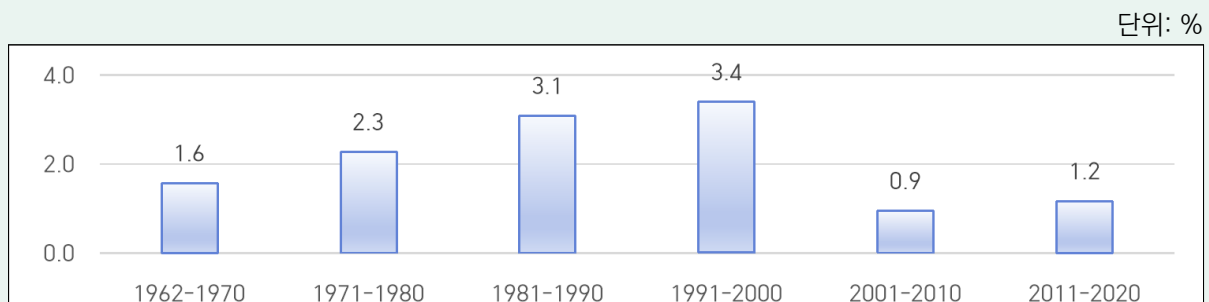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is.kr/>),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검색일: 2025. 8. 26.

생산성 증가세 둔화

Ⅰ 2000년대 들어 농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감소

- 노동, 토지 등 생산요소의 투입 확대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 진보, 경영 효율화, 제도·정책 개선 등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 노력 필요

〈그림 2〉 기간별 한국 농업 총요소생산성 전년 대비 증감률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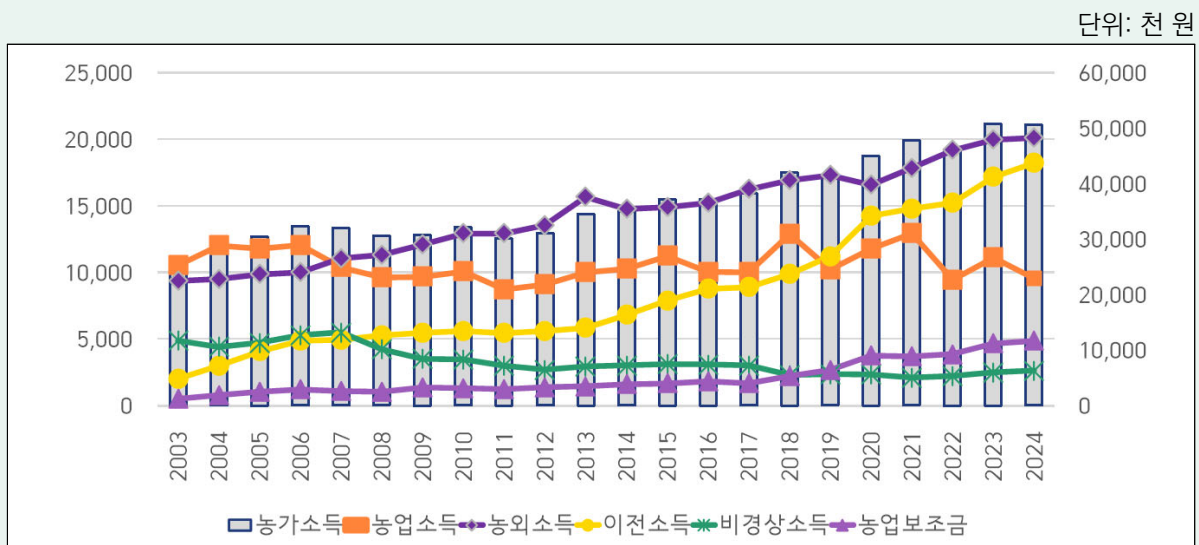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2024), data as of October 2024.

농업소득 정체

Ⅰ 농업소득이 정체되어 농업만으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 농업소득은 1,100백만 원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

〈그림 3〉 농가소득(명목) 구조



주: 2인 이상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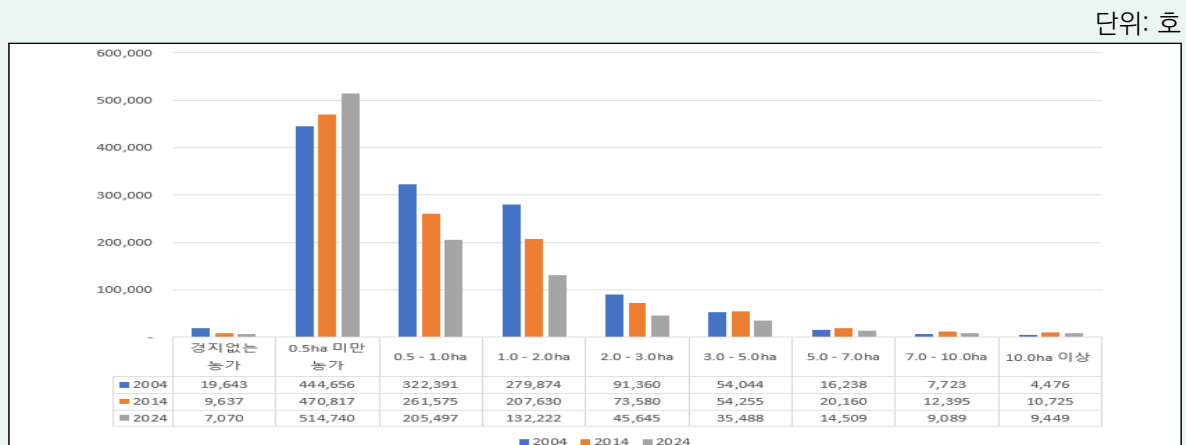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경지규모 0.5ha 미만 농가 증가

Ⅰ 농업경영 자체만으로 농가경제 유지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 증가

- 지난 20년간 가장 규모가 작은 0.5ha 미만 농가 수와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2024년 52.9%)

〈그림 4〉 경지규모별 농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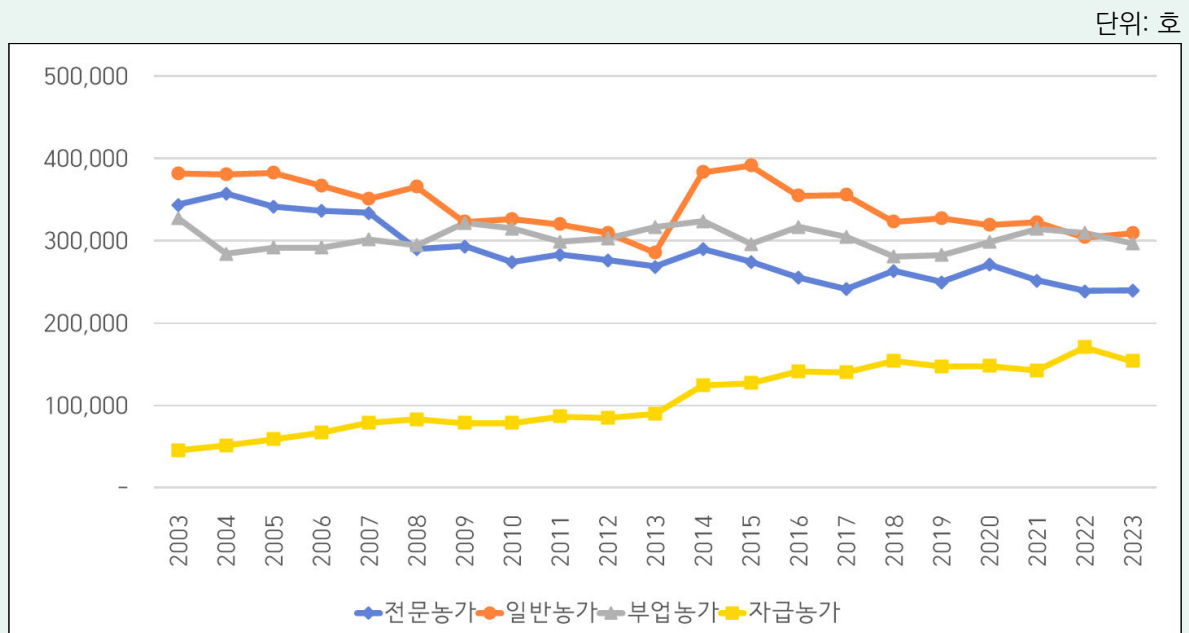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전문농가 수 및 비율 감소, 자급농가 수 및 비율 증가

I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영농규모가 큰 전문농가 수는 감소하는 반면 자급농가 수는 증가

- 농업 성장을 견인할 전문농가 육성과 함께 부업·자급농가의 지역 경제 활성화,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 보전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창출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농업을 주업으로 하나 규모가 작은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전문농가로의 성장, 농외소득 창출 기회 제공, 농업 이외의 생계 안정 지원 등 맞춤형 정책 필요

〈그림 5〉 주부업별 농가 수



주 1) 주부업 형태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 전문농가, 일반농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2) 주업: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3) 전문: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인 농가.

4) 일반: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 미만이고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 원 미만인 농가.

5) 부업: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6) 자급: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 및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농가.

7) 농가별 가중치 적용, 2014년부터 1인 농가 포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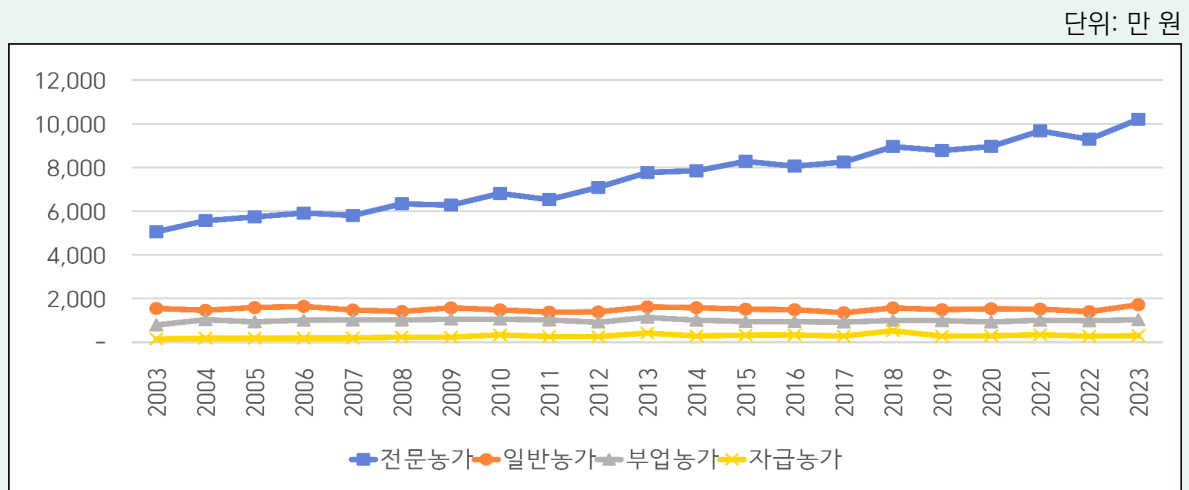
02 전문농가 경영성과



전문농가의 농업총수입 지속적으로 증가

- 전문농가의 농업총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다른 유형의 농가는 농업총수입 정체
- 전문농가의 농가당 농업총수입과 전체 농업총수입에서의 전문농가 비율 모두 증가
- 농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전문농가에 전략적으로 더욱 집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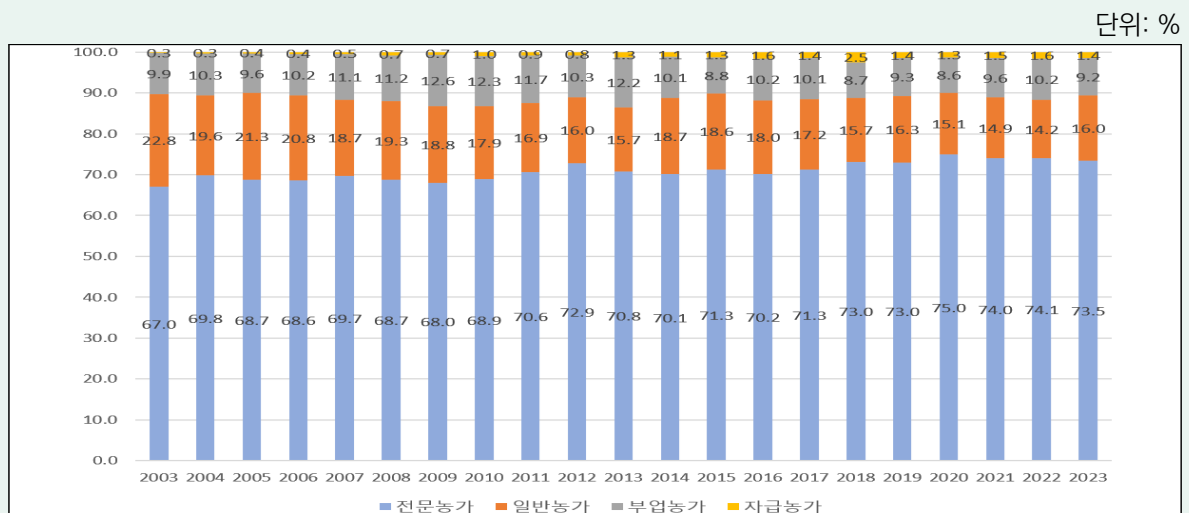
〈그림 6〉 주부업별 농업총수입(농가당)



주: 농가별 가중치 적용, 2014년부터 1인 농가 포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7〉 주부업별 농업총수입 비율



주: 농가별 가중치 적용, 2014년부터 1인 농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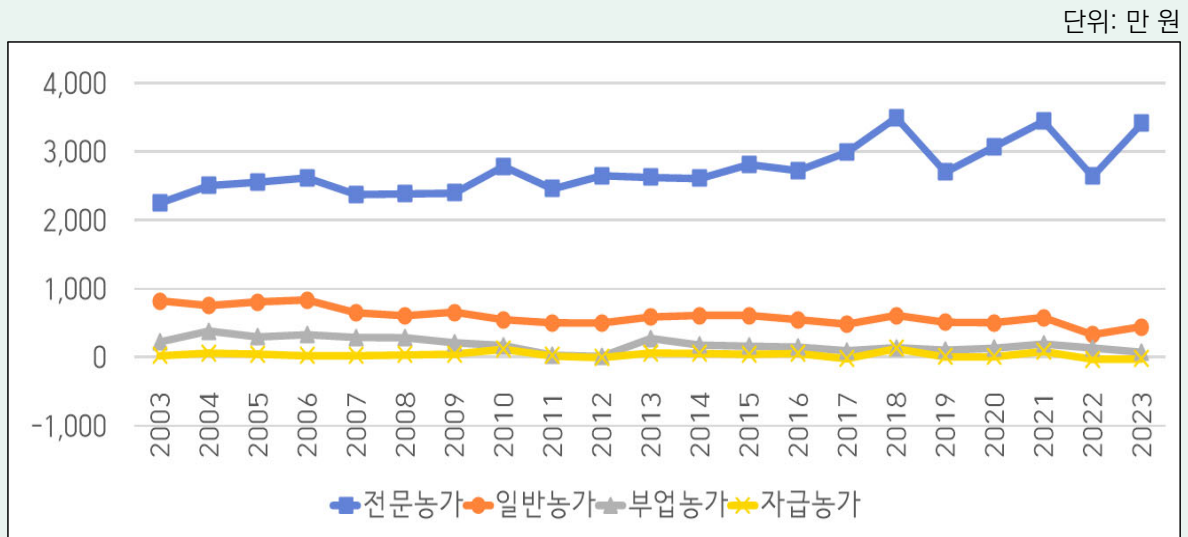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전문농가의 농업소득 규모와 비율 모두 가장 높음

Ⅰ 전문농가의 농업소득이 절대적으로 크며, 농가경제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높음.

- 전문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경제 및 경영안정은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
- 전문농가의 경영역량 향상, 새로운 기술 도입, 경영안정,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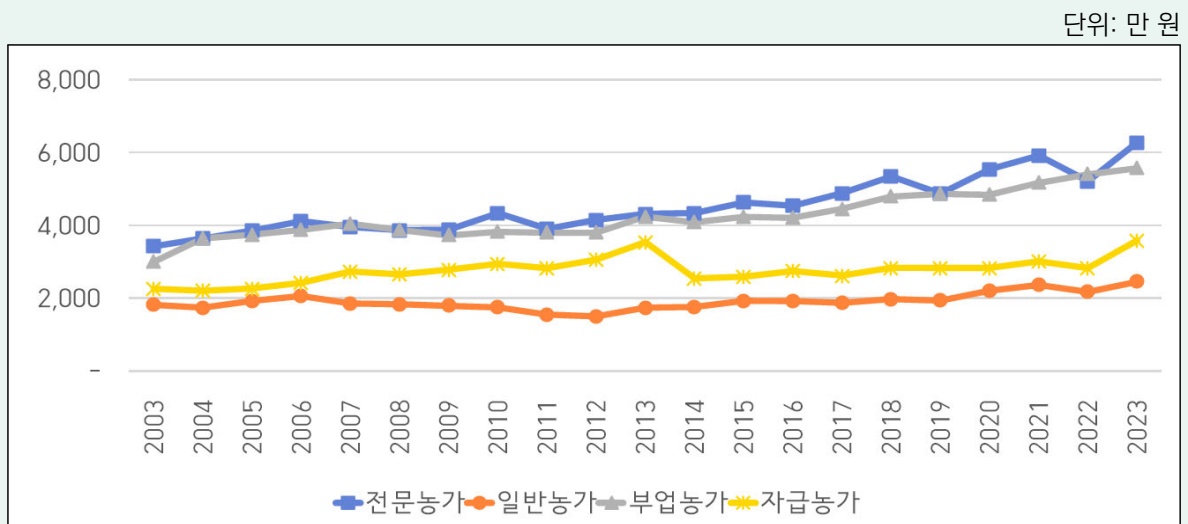
〈그림 8〉 주부업별 농업소득



주: 농가별 가중치 적용, 2014년부터 1인 농가 포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9〉 주부업별 농가소득



주: 농가별 가중치 적용, 2014년부터 1인 농가 포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전문농가의 소득률이 가장 높으나, 농업총수입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가장 낮음

Ⅰ 전문농가의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 소득률(=농업소득/농업총수입)이 가장 높으나, 농업소득 및 농업총수입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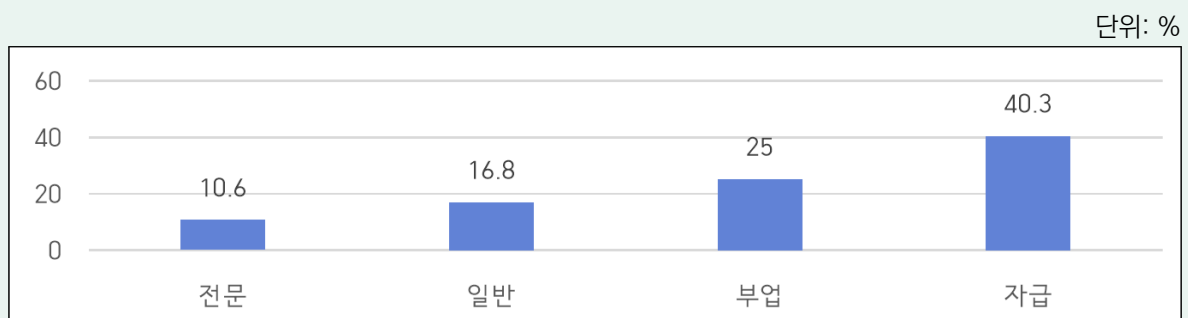
- 농업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전문농가의 소득률이 가장 높다(31.4%)는 것은 경영 효율성 역시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전문농가가 가장 높으며(50.6%), 일반농가(11.2%), 부업농가(0.9%), 자급농가(-1.4%) 순임.
- 전문농가의 농가당 농업보조금이 가장 크지만, 농업총수입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전문농가가 가장 낮으며(10.6%), 자급농가(40.3%), 부업농가(25.0%), 일반농가(16.8%) 순으로 높음.

〈표 1〉 주부업별 농가소득 구조(2024년)

구분	평균	전문농가	일반농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 농가소득(천 원)	50,597	65,407	27,307	59,229	46,989
▪ 농업소득(%)	18.9	50.6	11.2	0.9	-1.4
▪ 농외소득(%)	39.8	11.4	9.9	68.9	60.6
• 겸업소득(%)	13.0	3.2	1.8	24.3	16.9
• 사업외소득(%)	26.9	8.2	8.1	44.6	43.7
▪ 이전소득(%)	36.0	34.2	69.7	25.5	35.1
• 농업보조금(%)	9.6	17.1	11.9	4.5	2.7
▪ 비경상소득(%)	5.2	3.8	9.2	4.7	5.8
● 농업총수입(천 원)	36,849	105,630	19,387	10,689	3,097
농업소득/농업총수입(%)	26.0	31.4	15.8	4.8	-21.5
농업보조금/농업소득(%)	50.8	33.8	106.6	520.0	-187.1
농업보조금/농업총수입(%)	13.2	10.6	16.8	25.0	40.3

자료: 통계청(2024), 농가경제조사.

〈그림 10〉 주부업별 농업총수입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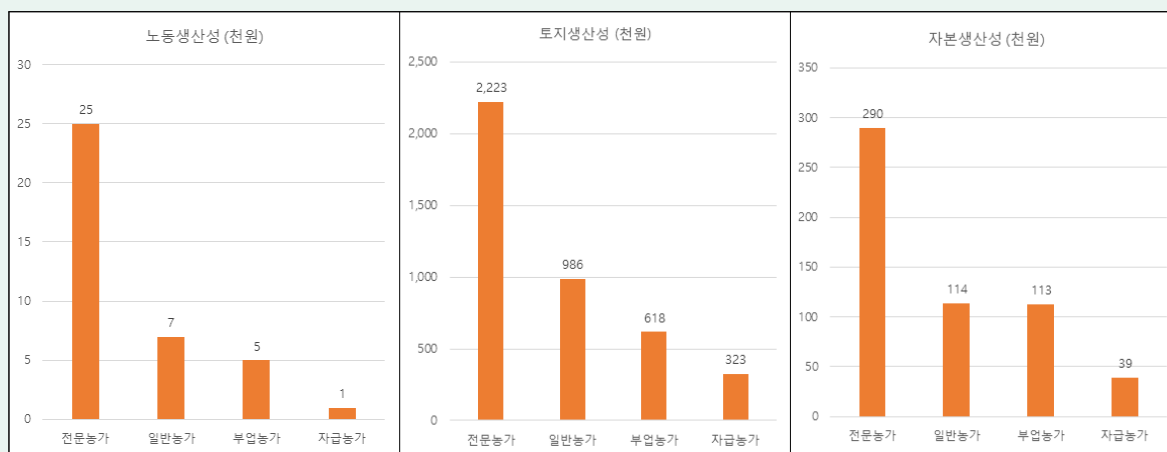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4), 농가경제조사.

전문농가의 생산성이 가장 높음

I 전문농가의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자본생산성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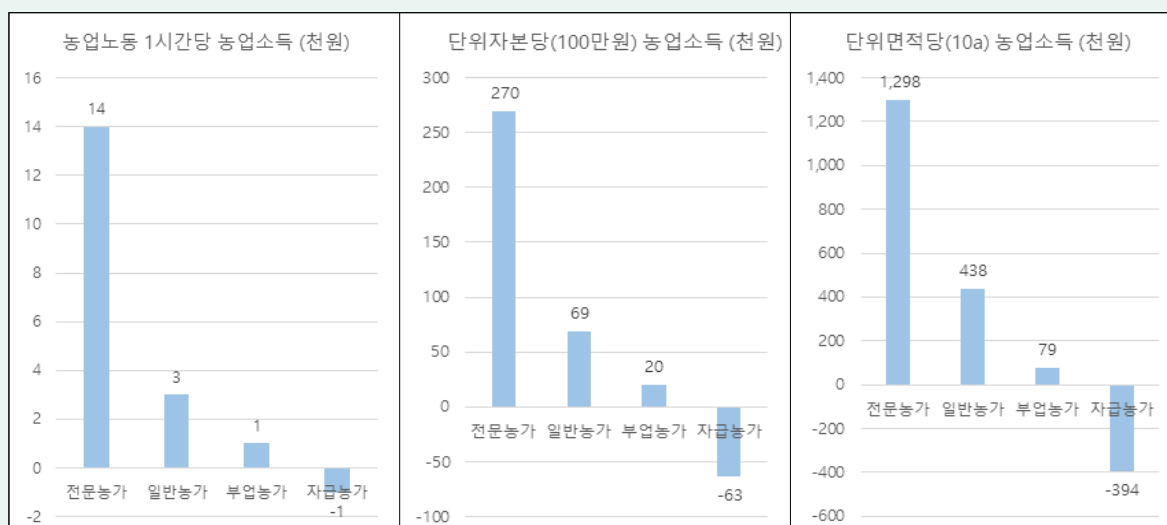
- 또한 농업노동 1시간당, 단위자본당(100만 원), 단위면적당(10a) 농업소득이 가장 높음.
- 한국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영효율성 및 생산성이 높은 전문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필요

〈그림 11〉 생산요소 생산성(2024년)



자료: 통계청(2024), 농가경제조사.

〈그림 12〉 생산요소 단위당 농업소득(2024년)



자료: 통계청(2024), 농가경제조사.

03 농업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농가 중심으로 경영역량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 및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

Ⅰ 전문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업경영체 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

- 전문농가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의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또한 경영효율성 및 생산성이 높으며,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매우 큼.
- 기회창출, 기술활용, 네트워킹, 경험학습, 자원조달 등 농업인의 경영역량이 높을수록 현재 또는 미래의 경제적 성과가 높음.¹⁾
- 따라서 현재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한국 농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농가의 경영역량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 및 규모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확대·강화될 필요가 있음.
-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술 교육 및 도입 지원, 위기관리 훈련 프로그램, 재무 및 금융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국내외 시장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농업인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확대 필요
- 경영효율성이 높고 규모화되어 있는 전문농가의 경영성과 향상과 원활한 승계 등을 위해 전문농가의 농업법인 전환 확대 필요²⁾³⁾

Ⅱ 농정성과지표로 전문농가의 농업총수입 또는 농업소득 관련 지표 선정

- 농정성과지표는 농업정책의 추진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함.
-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농가경영안정은 농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 농업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농가소득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은 전문농가의 농업총수입, 농업소득 등의 경영성과를 성과지표로 할 필요가 있음.⁴⁾

1) 이명기 외(2024),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 경영 구조 전환 방향과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농업법인은 가계와 기업의 분리가 가능하여 개별 농가 단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규모화·전문화·다각화를 통한 경영성과 향상에 유리함, 또한 제3자 영농승계, 공동 영농 등을 통해 경영주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젊은 농업인으로서의 세대 전환에 유리함.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의 법, 농식품정책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에 농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제고 등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강화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함(이명기 외, 2025, 한국 농업의 구조 변화와 중장기 정책 과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4) 농식품부의 「20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전략 목표Ⅰ.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의 성과지표는 농가소득액이며, 성과목표인 직불금 확대 및 농가경영안정망 구축의 성과지표는 5개 평균 증가율 이상의 농가소득 증가임.

감 수 임소영 연구위원 061-820-2239 sylim@krei.re.kr
내 용 문 의 이명기 선임연구위원 061-820-2166 mkleee@krei.re.kr

※ 「KREI 이슈+」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이슈+

제41호

농가경제 실태와 농업 성장을 위한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5. 9.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I S S N 2983-3418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